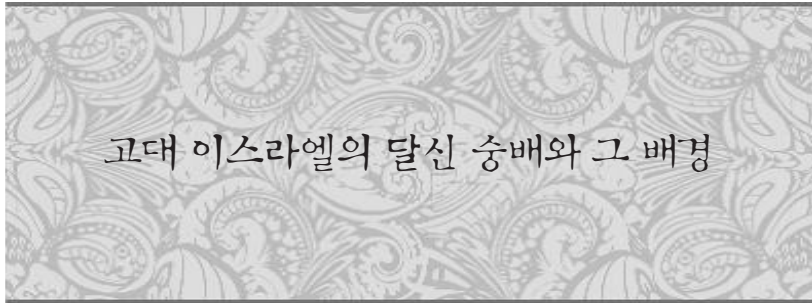


# 구약논단

제17권 4호(통권 42집) 2011년 12월 31일

강 승일(한남대) 고대 이스라엘의 달신 숭배와 그 배경 .....	146
이 논문은 구약성경의 증거뿐만 아니라 고고학, 도상학적 자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간신앙에서 달신 숭배가 행하여졌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또한 아시리아-아람인들의 군사, 종교적 활동의 간접적인 영향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수용이 주전 7세기 경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달신 숭배가 확산된 배경임을 제시한다.	
<b>Kang, Seung-II</b> The Cult of the Moon God in Ancient Israel .....	146



# 고대 이스라엘의 달신 숭배와 그 배경

강승일 | 한남대

## 1. 들어가는 말

오토마 킬(Othmar Keel)을 중심으로 한 소위 Fribourg 학파의 등장과 함께 최근 국제성서학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 영역이 바로 도상학(圖像學, iconography) 분야이다. 특히 이 분야는 구약성경본문을 통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던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복잡한 측면들을 밝혀주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들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서구에서는 이스라엘 종교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학문의 분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도상학 분야의 부상과 함께 더욱 많은 학문적 관심을 받고 있다. 그에 반해 구약 본문 해석 위주의 국내 구약학계에서는 일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 때문인지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여러 현상들 중에서도 달신 숭배에 관련된 증거들을 살펴보고, 달신 숭배가 이스라엘 사회에 퍼지게 된 시기와 그 배경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태양 숭배도 일월성신 숭배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루어야 할 자료의 분량이 많으므로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서 태양 숭배는 제외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구약성경의 내용과 함께 도상학적 자료들도 함께 다

루게 된다. 이렇게 텍스트와 고고학, 도상학 자료들을 동시에 분석하여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 텍스트인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사회의 엘리트 계층의 신학과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고고학 및 도상학 자료들은 이러한 신학자들의 선별작업과 편집을 거치지 않고 일반 평민들의 종교적 풍습과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해주기 때문이다.

고대 근동에서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달신 숭배와 관련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루이(Julius Lewy)의 달신 숭배에 대한 논문이 등장했고,<sup>1)</sup> 그를 뒤이어 수메르의 달신 난나에 대한 단행본이 뒤를 이었다.<sup>2)</sup> 1980년대 이후로는 수메르의 난나와 북부 메소포타미아 하란의 신(Sin)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학위논문과 단행본들이 출간되기 시작하였다.<sup>3)</sup> 최근에 들어서는 토이어(G. Theuer)가 메소포타미아의 달신 뿐만 아니라 서부 셈족의 달신 숭배에 대한 연구서를 출판하였다.<sup>4)</sup> 그는 이 책에서 신들의 목록, 제의문서, 찬양, 신화, 사람의 이름 등에 나타나는 달신을 각각 분류하여 연구하였고, 특히 도상학적 자료에 등장하는 달신의 모습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최근 국제학계에서도 도상학적 자료의 공헌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서의 달신 숭배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키(A. F. Key)의 1960년대의 짧은 논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달신 숭배에 대한 깊은 연구가 거의 없었고, 국내에서는 이 진태가 월삭과 관련하여 달신 숭배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간 것이 전부이다.<sup>5)</sup> 한편 국내 학자들 중에 달신 숭배자로 널리 알려진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 나보니두스와 관련된 논문

1) Julius Lewy, "The Late Assyro-Babylonian Cult of the Moon and Its Culmination at the Time of Nabonidus," *Hebrew Union College Annual* 19 (1945), 453-473쪽.  
 2) A. Jirku, "Der Kult des Mondgottes im altorientalischen Palästina-Syrien,"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100 (1950), 202-220쪽; A. Sjöberg, *Der Mondgott Nanna-Suen der sumerischen Überlieferung*, (Stockholm, Almqvist & Wiksell, 1960).  
 3) M. G. Hall, "A Study of the Sumerian Moon-God, Nanna/Sue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T. Green, *The City of the Moon-god: Religious Traditions of Haran*, (Leiden: Brill, 1992).  
 4) G. Theuer, *Der Mondgott in den Religionen Syrien-Palästina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KTU 1,24*, (OBO 17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5) A. F. Key, "Traces of the Worship of the Moon God Sin Among the Early Israelit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4 (1965), 20-26쪽; 이 진태, "안식일의 기원과 달신 숭배 - 구약의 달력에 대한 고찰," 「신학지남」 42집 (1975), 84-98쪽.

이 두 편이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들 논문들은 달신 숭배 그 자체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다.<sup>6)</sup>

이러한 상황에서 짧은 분량의 본 논문이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의 초석이 되면 좋겠다. 아울러 달신 숭배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민간 종교의 여러 측면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성경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이스라엘 일반 민중들의 다양한 종교적 풍습들을 찾아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 방법론적으로 성경 본문 분석에 그치지 않고 고고학 및 도상학적 자료들을 활용하는 다각도의 연구 방식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2. 고대 근동지역의 달신들

어두운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것은 달이다. 그래서 달은 많은 종교 전통에서 경배의 대상이 되곤 한다. 특히 농경문화권에서 주요 제사와 축제들이 달의 주기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초승달이 점점 커져서 보름달이 되고, 다시 크기가 줄어들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달의 끊임없는 순환은 자연의 순환과 관련지어 생각되기도 했다. 그래서 달신은 사람이나 가축, 생산물에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다.

고대 이집트의 대표적인 달신은 콘수(Khonsu)와 토트(Thoth)였다. 콘수는 아문(Amun)과 무트(Mut)와 함께 테베의 주요 삼신(divine triad)중의 하나였다.<sup>7)</sup> 그의 신상은 종종 달신의 상징물인 초승달 안에 보름달 모양을 한 장식을 머리에 쓰곤 했다. 그는 사람과 동물의 수태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졌다.

토트는 본래 달신이었으나 나중에는 지혜와 글의 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sup>8)</sup> 그렇지만 그의 달신으로서의 특성은 사라지지 않아서 태양신 레(Re)와 짝을 이루는 밤의 태양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는 따오기와 개코원숭이 두 가지의 동물로 각각 나타날 수 있었다.

6) 이 동규, “나보니두스의 정치, 종교적 행적(行蹟)과 그 배경,” 『서양고대사연구』 23집 (2008), 7-31쪽; 이 종근, “신 바벨론 제국의 나보니두스에 관한 소고,” 『성경과 고고학』 60호 (2008), 18-40쪽.

7) Richard H. Wilkinson, *The Complete Gods and Goddesses of Ancient Egypt*, (London: Thames & Hudson, 2003), 113-114쪽.

8) 윗글, 215-217쪽.

고대 근동에서 달신 숭배의 전통이 가장 강했던 곳은 메소포타미아이다. 메소포타미아의 달신의 이름은 수메르어로 난나(Nanna) 또는 수엔(Suen)이었다. 때로는 이 두 이름이 결합하여 난나-수엔(Nanna-Suen)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는 달의 신이므로 달의 주기인 숫자 30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sup>9)</sup> 난나의 부모는 엔릴과 닌릴이고, 난나는 부인 닌갈과의 사이에서 태양신 우투와 사랑과 성의 여신 이난나를 낳았다. 수엔은 아카드어에서 나중에 신(Sin)으로 발음되었기 때문에 달신은 신(Sin)이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신 제의의 중심지는 남쪽의 우르와 북쪽의 하란이었다. 하지만 신 제의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어 달신의 신전들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여러 큰 도시들에 세워지기도 하였다.

유프라테스 강 서편 북부 시리아에 위치한 마리에서도 달신의 이름이 포함된 인명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마리에서 달신은 에라흐(Erakh)로 불렸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달을 가리키는 לַיְלָה(야레아흐/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마리에서 발견된 인명들 중에는 아브두-에라흐(Abdu-Erakh/에라흐의 종), 안틴-에라흐(Yantin-Erakh/에라흐가 주셨다), 짐리-에라흐(Zimri-Erakh/에라흐의 보호), 우리-에라흐(Uri-Erakh/에라흐의 빛) 등이 있다.<sup>10)</sup> 우가릿에서도 달신 야리흐(Yarikh)가 여러 문헌에 언급되고 있다. 또한 bdyrh(야리흐의 종)과 같은 인명도 발견되었다.<sup>11)</sup> 셈어의 인명에는 그 사람의 부모나 가문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달신의 이름을 가진 인명이 이렇게 다양하게 발견된다는 것은 그만큼 달신 숭배가 널리 행하여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3. 달신 숭배의 도상학적 증거들

인장이나 부조 작품 같은 도상학 자료들에서 달신 신(Sin)을 구별해 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신(Sin)은 끝 부분이 그의 상징인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

9) Jeremy Black and Anthony Green, *Gods, Demons and Symbols of Ancient Mesopotamia*,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2), 135쪽.

10) Brian B. Schmidt, “Moon,” Karel van der Toorn et al.(ed.),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Leiden: Brill, 1999), 587쪽.

11) 윗글, 587쪽.

는 창을 들고 있거나, 또는 머리에 초승달 모양의 머리 장식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프라테스 강가의 삼사트(Samsat)에서 발견된 한 원통형 인장에는 신(Sin)이 배를 타고 서 있고, 그 앞에 한 남자가 경배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사진 1).<sup>12)</sup> 달신과 배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집트에서 태양신이 배를 타고 하늘의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였다고 여겨졌듯이, 달신도 배를 타고 밤하늘을 가로질러 다녔을 것이라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배의 생김새가 초승달의 모양과 유사하기 때문에 배가 달신인 신과 종종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3)</sup> 달은 밤의 악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 때문에 신(Sin)도 흔히 초승달 모양으로 장식된 검을 들고 있기도 한다.

아시리아에서 신(Sin)의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원통형 인장이 있다.<sup>14)</sup> 팔레스틴의 도단(Dothan)에서 발견된 주전 8세기의 작품인데, 이것은 아마도 디글랏 빌레셀 3세 시대에 아시리아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사진 2). 여기에 새겨진 그림에는 왕과 사제가 제의를 진행하고 있고, 사제의 뒤로 세 가지 물건들이 세워져 있다. 왼쪽에는 삼, 중앙에는 초승달을 세워놓은 깃대, 오른쪽에는 점토판에 췌기 문자를 찍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펜이 있다. 왼쪽의 삼은 전통적으로 바빌로니아 최고의 신 마르둑의 상징물이다. 마르둑이 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마르둑이 본래 농경의 신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sup>15)</sup> 오른쪽의 펜은 메소포타미아의 서기관과 지혜의 신 나부의 상징물이다. 나부는 후에 마르둑의 아들로 여겨질 정도로 널리 숭배되던 신이었다. 중앙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깃대는 물론 신(Sin)의 상징물이다. 그런데 중앙의 깃대가 양 옆의 삼과 펜보다 두 배 정도나 더 크다. 도상학에서 인물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그 인물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이 인장은 주전 일천년 대에 아시리아에서 달신인 신(Sin)이 마르둑과 나부보다도 훨씬 더 유력한 신으로 경배되

12) Tallay Oman, *The Triumph of the Symbol: Pictorial Representations of Deities in Mesopotamia and the Biblical Image Ba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5), 234쪽 Figure 34.

13) Othmar Keel and Christoph Uehlinger, *Gods, Goddesses, and Images of God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8), 309쪽.

14) Othmar Keel, *Goddesses and Trees, New Moon and Yahweh: Ancient Near Eastern Art and the Hebrew Bible*, (JSOTSup 26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Figure 15.

15) Jeremy Black and Anthony Green, *윳글*, 129쪽.

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신(Sin)의 상징물로 보름달보다는 초승달이 더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도상학적으로 보름달, 즉, 원형은 태양과 혼동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초승달은 달 이외의 다른 것으로 보일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초승달은 어둠을 이기고 새롭게 등장하는 젊음과 힘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월삭이 중요한 축제의 절기였다. 그러므로 초승달이 신(Sin)의 능력을 상징하는 데에 적합했을 것이다.

#### 4. 팔레스틴의 도상학 자료들

메소포타미아 이외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도 고대 이스라엘에서 달신이 예배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주전 13세기 하솔에서 발굴된 석비에는 윗부분에 초승달이 보름달을 감싸고 있는 달신의 상징물이 있고, 그 아래에는 사람의 두 손과 팔의 모습이 마치 이 상징물을 경배하는 듯 펼쳐져 있다(사진 3). 물론 13세기 하솔은 아직 철기시대 이스라엘 문화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가나안 지역에서도 달신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전 9세기 북부 갈릴리 지역의 벳세이다(Bethsaida)에서는 머리에 초승달 모양의 큰 뿔을 가진 황소 모양의 인물이 새겨진 현무암 석비가 출토되었다(사진 4). 머리의 뿔이 전형적인 달신의 상징물인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달신이 종종 황소로 지칭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이스라엘에 달신의 존재를 알리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팔레스틴에서 발견된 많은 인장들에는 깃대 위에 초승달 모양의 달신의 상징물이 올려져 있고, 그 양 옆에 사람들이 손을 올려 경배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난다.<sup>17)</sup> 이들 중 한 인장의 주인의 이름은 나탄야우(na-tan-ia-u)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이름은 분명히 야훼 이름이다. 다시 말해 야훼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달신 숭배는 그리 낯선 풍습은 아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16) Othmar Keel, *윳글*, 117-118쪽.

17) 이 인장들에 새겨진 그림은 윳글, Figures 32-49에 있다.

것이다. 또 다른 인장에는 달신의 상징물 대신에 한 인물이 앉아 있고, 그 주위에 달, 별, 마르둑의 상징물인 삽, '생명'을 의미하는 이집트 상형문자 앙크가 새겨져 있다. 이 인물은 달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sup>18)</sup>

앞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달신이 배를 타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팔레스틴의 인장들에도 달신이 배를 탄 모습이 종종 발견된다.<sup>19)</sup> 특히 주전 6-5 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다로 파견된 페르시아의 관리(lpqd yhd)의 인장에는 달신이 전형적인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배를 탄 장면이 나타나 있다.<sup>20)</sup> 이는 달신이 타는 배가 사실은 초승달이 형상화된 것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 5. 나보니두스

메소포타미아의 달신 숭배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주전 6세기 중엽 신 바빌로니아의 왕 나보니두스(Nabonidus)이다. 나보니두스는 바빌론의 신 마르둑의 지위에 도전하며 신 제의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을 시행하였다. 그는 신(Sin)에게 "신들의 주"요 "신들의 신"이라는 명칭을 주었다. 나보니두스는 또한 그의 딸을 우르에 있는 신 제의의 여사제로 임명하여 우르의 달신 숭배의 전통을 이어나갔다.

나보니두스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다. 그가 신(Sin) 숭배를 도모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또 하나의 신(Sin) 숭배의 본거지 하란(Harran)의 여사제였던 그의 어머니 아닷-구피(Adad-guppi)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나보니두스의 행적 중에서 가장 기이한 것은 그가 바빌론을 떠나 북아라비아의 오아시스 지역인 테마(Teima)에서 거의 10년간 거주하였다는 사실이다. 역시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달신 숭배가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에 나보니두스가 바빌론보다는 테마에서 종교생활을 하기가 수월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sup>21)</sup> 그러나 그의 비문들에는 그가 테마에서 종교적 활동

을 했다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쩌면 그는 테마 지역의 금광들과 그 지역을 지나는 교역로를 확보하고 건축을 위한 자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sup>22)</sup>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가 직접 테마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동안 거주할 필요 없이 대리자를 보내 통치하도록 했어도 될 문제이다.<sup>23)</sup>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나보니두스의 테마 체류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sup>24)</sup>

나보니두스의 기행은 후세의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졌던 듯하다. 단 4장은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을 기이하게 묘사하고 있다. 4장 16절을 보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내리라"라고 되어 있고, 또한 33절에는 "바로 그 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일곱 때"는 7년을 말한다.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에 대한 기록은 사실 나보니두스가 테마에서 체류한 사실을 바탕으로 각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대교에서 숫자 7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상징수이기 때문에 나보니두스의 10년 테마 체류를 느부갓네살의 7년간의 방황으로 수정하는 것은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또한 다니엘서에서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다. 이 역시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모델은 나보니두스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sup>25)</sup> 다니엘서의 저자가 바빌로니아의 왕들의 역사를 몰랐던 것 같지는 않다. 단지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원수이므로 다니엘서의 저자는 잘 알려진 나보니두스의 전승을 느부갓네살에게 적용시켜 그를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 4장 이외에도 "나보니두스의 기도"(4QPrNab)와 같은 후대의 쿵

18) 윌클, Figures 49번 인장.

19) Othmar Keel and Christoph Uehlinger, 윌클, 308쪽 그림 305-307.

20) 윌클, 375쪽 그림 358c.

21) Julius Lewy, 윌클, 450쪽.

22) William F. Albright, "The Conquest of Nabonidus in Arabia,"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25), 294쪽.

23) Paul-Alan Beaulieu, "King Nabonidus and the Neo-Babylonian Empire," Jack M. Sasson(ed.),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2000), 975쪽.

2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동규, "나보니두스의 정치, 종교적 행적(行蹟)과 그 배경," 『서양 고대사연구』 23집 (2008), 17-25쪽; 이 종근, "신 바벨론 제국의 나보니두스에 관한 소고," 『성경과 고고학』 60호 (2008), 28-31쪽.

25) Paul-Alan Beaulieu, 윌클, 978쪽.

란 문헌도 나보니두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sup>26)</sup>

## 6. 구약성경의 달신 숭배

신 4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일월성신 숭배에 대하여 금지하는 명령이 성경에 남아 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월성신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가족도 달신 숭배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했다. 앞서 말했듯이 메소포타미아의 달신 숭배의 본거지는 남쪽의 우르와 북쪽의 하란인데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본래 우르 출신이었고, 후에 하란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분명 달신 제의에 대하여 익숙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이름들은 달신 제의를 암시하기도 한다. 우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דֶרָא)의 이름은 ‘테르(têr)는 (나의) 형제(ah)’를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다.<sup>27)</sup> 테르는 신아시리아 제국의 하란 지역에서 섬겨지던 달신이었다. 하란의 만신전에는 달신인 신의 부인으로 ‘왕비’를 의미하는 사라투(Šarratu)와 딸로 ‘공주’를 의미하는 말카투(Malkatu)가 있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과 처제의 이름이 무엇인가? 사라(סָרָא)와 밀가(מִלְכָּא)이다. 이 두 이름은 아카드어로 사라투와 말카투로 옮길 수 있다.<sup>28)</sup> 또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이자 야곱의 장인인 라반의 이름을 보자. 라반(רִבְנִי)이라는 이름은 ‘흰 사람’을 의미한다. 밤하늘에 희게 빛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달이다. 그래서 라바나

(Labana)라는 달신도 있다.<sup>29)</sup> 라반의 이름도 이 달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달신을 숭배했을까? 이름이나 고향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성경은 그렇다고 볼 만한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 게다가 조금 전의 이름에 대한 설명들 중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데라는 달신 테르 보다는 ‘산양’을 의미하는 아카드어 투라후(turāhu)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sup>30)</sup>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달신 숭배자들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지만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신을 섬겼다는 증거는 충분히 있다. 성경 외의 히브리어 비문들에서는 아직까지 달신의 이름의 요소를 가진 이스라엘인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 가능성이 있는 이름이 하나 있다면 yhwzrh인데, ‘야훼께서 비취셨다’를 의미하는 이 이름은 야훼 하나님을 태양신보다는 달신과 관련된어 생각하게끔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31)</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zrh(자라흐/떠오르다)라는 동사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묘사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히브리어 비문들 이외에 성경 내에서는 달신 제의와 관련된 이름들이 나타난다. 창 10장 26절의 예라(עֵרָא), 대상 5장 14절의 야로아(יָרֵא), 대상 8장 9절의 호테스(חֹטֵס)등과 같은 인명들과 유명한 도시 예리고(יֵרִיכוֹ)도 달과 관련이 있다. 이 이름들은 고대 이스라엘에 달신 숭배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또한 달신 신(Sin)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 느헤미야의 대적 중의 하나인 산발랏이다. 그의 이름 산발랏(שַׁבְּלַיִט)은 아카드어 이름으로 “신(Sin)이 생명을 주신다”(Sin-uballit)는 의미이다. 아카드어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외국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스투바벨과 같은 유대인 지도자도 바빌로니아식 이름을 취했기 때문이다.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수 16장 3절과 5절에 언급된 예루살렘 북쪽의 벤호론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sup>32)</sup> 그렇다면

26) Frank M. Cross, “Fragments of the Prayer of Nabonidus,” *Israel Exploration Journal* 34 (1984), 260–264쪽; F. G. Martinez, *Qumran and Apocalyptic: Studies on the Aramaic Texts from Qumran* (Leiden: Brill, 1992), 116–136쪽.

27) Julius Lewy, *윗글*, 425쪽.

28) C. F. Burney, *The Book of Judges with Introduction and Notes on the Hebrew Text of the Books of Kings with an Introduction and Appendix*,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70), 249–250쪽.

29) A. F. Key, *윗글*, 20–26쪽.

30) R. S. Hess, “Terah (Person),” *Anchor Bible Dictionary* 6:387–388쪽.

31) Brian B. Schmidt, *윗글*, 588쪽.

32) H. G. M. Williamson, “Sanballat (Person),” *Anchor Bible Dictionary* 5:973쪽.

산발랐은 달신 신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작명예까지 침투해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되겠다.

삼상 27장에는 여라무엘이라는 부족이 등장한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후에 유다 지파에 포함된다. 여라무엘(לְרַמְוֶ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Yerah-ma'el '달은 진실로 신이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sup>33)</sup> 만일 후자의 해석을 취한다면 여라무엘 부족은 달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약성경은 달신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거나 비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욥 25장 5절은 하나님 앞에서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구절은 일월성신 숭배를 반대하여 야훼 하나님이 달신과 별신들보다 더 강력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인들은 종종 달의 빛이 사람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쳐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도 한다고 믿었다. 영어로 '미치광이'를 의미하는 lunatic이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달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월삭의 해로운 영향은 호 5장 7절에도 암시되어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이다." 그런데 시 121편 5-6절은 그 반대의 주장을 편다.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메소포타미아인들처럼 해와 달이 흉조를 보이면, 그로 인하여 재앙이 닥칠 것을 두려워하곤 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해와 달이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달의 신비스러운 힘을 통제하는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 47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종 주술행위에 의지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천기의 이상이나 꿈, 기형적인 모습의 동물이 태어난 것 등을 관찰하여 미래를 점치는 학문이 발전했었는데, 사 47장 13절은 이러한 주술 행위들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행하여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고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달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이 구절에 의하면 초하룻날, 즉 초승달이 새로 뜰 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래를 점치곤 했음을 알 수 있다. 왕하 4장 23절도 마찬가지로 월삭 때가 예언자를 만나 예언을 듣기에 적합한 때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초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월삭은 가족들과 친족들이 모여 지내는 중요한 축제들 중의 하나였다(삼상 20: 5-6). 암 8장 5절에는 월삭이 안식일과 함께 언급되어 있다. 민 28장 11-15절은 월삭 때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할 제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목록을 보면 월삭이 이스라엘의 다른 중요한 절기만큼 중요하게 여겨졌음이 분명해진다.<sup>3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예언자들 사이에서는 월삭 축제와 관련된 일부 종교적 행습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였다. 사 1장 13-14절이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호세아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호 2:11).

사 24장 21-23절은 우주적 종말을 묘사하고 있다. 그 중에서 23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 구절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의 권세들, 특히 달(יָרֵחַ)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달에 대한 경계심이 구약성경 곳곳에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민간신앙에서 달신 숭배가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듯하다. 그만큼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달 사이의 격차를 강조하는 데 신경을 썼다. 시 148편 3절은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다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명령함으로써 일월성신들을 찬양받는 대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로 돌려놓고 있다. 창 1장에서 해와 달이 하나님의 단순

33) C. F. Burney, *유태교*, 252쪽.

34) Jacob Milgrom, *The JPS Torah Commentary: Numbers*,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242쪽.

한 피조물에 불과한 “광명체들”로 언급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7. 팔레스틴에서 달신 숭배의 부활

이스라엘 사회 일각에서 달신 숭배가 행해지면서 야훼주의자들은 이를 배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달신을 포함한 일월성신 숭배를 금지하는 구절들은 대부분 신명기 및 신명기 역사서, 그리고 예레미야에 분포되어 있다(신 4: 19; 17: 3; 왕하 23: 5; 욥 31: 26; 렘 8: 2). 이 책들이 주로 주전 7세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유다에서 달신 숭배가 유행하던 때가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달신 숭배의 증거를 담고 있는 입장들의 대부분은 주전 8세기 말에서 7세기 말 경에 제작된 작품들이다.

물론 일월성신 예배는 서부 셈족에서도 오래 전부터 널리 행하여지던 풍습이었다. 특히 우가릿의 증거들은 일월성신 숭배가 후기 청동기 시대 서부 셈족 종교의 한 현상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sup>35)</sup> 예를 들어, 달신 야리흐(Yarih)는 “엘의 선호하는 자”(n'mn 'illm, CAT 1.24:25)라고 불리고, 엘의 가족 구성원 중의 하나로 등장한다. 또 하나의 우가릿 문서(CAT 1.101:3-5)에서는 “별들의 모임”과 “엘의 아들들”이 병행되어 언급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욥 38장 6-7절에도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בְּנֵי אֱלֹהִים)이 병행되어 있다. 두 문서 모두 서부 셈족 만신전의 일월성신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일월성신 숭배는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서부 셈족 종교에서도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주전 7세기 경에 팔레스틴에서 일월성신 숭배가 다시 부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팔레스틴에서 달신 숭배가 다시 유행하게 된 것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아시리아 제국의 지배권이 강화된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두 학자들이 독립적으로 행한 각각의 연구들에 의하면 아시리아 사람

들은 그들이 정복한 지역에 종교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sup>36)</sup> 아시리아가 종속국과 맺은 조약들에는 종교나 제의와 관련된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와 아람의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많은 아람 국가들이 아시리아 제국의 의해 멸망한 주전 8-7세기에 하란 지역에는 아람인들이 매우 많이 거주하였다. 아시리아인들이 아람 지역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하란의 달신을 신(Sin)이라는 이름으로 섬겼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란의 달신이 사하르(Šahar)로 불렸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 שָׁחַר(사하르/새벽)과 관련이 있다. 성경에 나타나는 두 명의 이름들이 이 달신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다. 아히사할(אֲחִישָׁאֵל) “사하르는 나의 형제이다”(대상 7:10)과 스사라(סָסָרָא) “야훼는 사하르이다”(대상 8:26)이다. 또 하나 고려할 이름은 사 14장 12절의 그 유명한 “아침의 아들 계명성”(בְּנֵי אֶרֶץ חֲמָט)이다. 여기서 “아침의 아들”을 “사하르의 아들”로 읽어야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약성경의 두 전승들이 하란 지역을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연결시키고 있다. 첫째, 주지하다시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 둘째, 신 26장 5절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유리하던 아람 사람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기 이스라엘 인구의 적어도 일부분은 하란 지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람인 유목민 출신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하란 지역에서 성행했던 달신 숭배를 몰랐을리 없을 것이다.

여기서 잠시 아시리아 제국의 진군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아시리아 제국은 주전 8세기 말부터 7세기까지 시리아-팔레스틴에서 세력을 확장하였다. 팔레스틴에 끼친 아시리아의 영향력은 이 시기에 팔레스틴에서 발견되는 아시리아 양식의 원통형 인장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사실로도 감지된다.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3세의 공격에 맞서 다메섹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는 반 아시리아 연합을 형성하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유다의 아하스에게 이 연합에 동참하라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에 디글랏

35) Mark S. Smith, “Yahweh, El, and the Divine Astral Family in Iron Age II Judah,” W. G. Dever and S. Gittin(ed.), *Symbiosis, Symbolism, and the Power of the Past*, (Winona Lake: Eisenbrauns, 2003), 265-277쪽.

36) M. Cogan, *Imperialism and Religion: Assyria, Judah and Israel in the Eighth and Seventh Centuries B.C.E.*, (Missoula: Scholars Press, 1974); idem, “Judah under Assyrian Hegemony: A Reexamination of Imperialism and Religi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2 (1993), 403-414쪽; J. McKay, *Religion in Judah under the Assyrians 732-609 BC*, (London: SCM Press, 1973).



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로 아시리아는 다메섹을 침공하고 이를 아시리아 제국으로 병합시켜 버렸다.

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베가를 살해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호세아는 디글랏 빌레셀에게 충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디글랏 빌레셀 시대에 당장은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주전 701년 유다의 히스기야 통치 시기에는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남부의 요새들을 대부분 점령하였다. 이때에 예루살렘은 다행히 점령당하지 아니하였다. 이보다 앞선 732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다메섹으로 가서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 그의 봉신이 되었다. 왕하 16장의 기록에 의하면, 아하스는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와 똑같은 모양의 제단을 세웠다. 이는 아시리아인들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 본인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아마도 아하스는 당시 유행하던 국제적 흐름을 따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sup>37)</sup> 고대 근동에서 한 문화적 양식이 국경을 넘어 유행하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자면 신전이나 궁전의 현관을 기둥들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시리아의 힐라니 양식은 히타이트 제국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그 양식을 도입했다.

아하스가 자발적으로 일월성신 숭배를 장려했다는 증거가 있다. 왕하 20장 11절에는 아하스의 해시게가 언급되어 있다. 특히 왕하 23장 12절은 아하스가 성전에 다락방을 만들었고, 그 지붕에는 제단들이 세워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제단들은 일월성신을 예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sup>38)</sup> 또한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 므낫세는 일월성신 숭배의 전통을 이어받아 성전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들을 경배하였다(왕하 21: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비록 아시리아 제국이 유다에게 종교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아시리아-아람인들의 종교적 풍습에 영향을 받아 자발적으로 달신 숭배를 받아들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sup>39)</sup>

37) M. Cogan and H. Tadmor, *11 Kings*, (Anchor Bible 11), (New York: Doubleday, 1988), 193쪽.

38) Samuel Ivry, "The Qumran Isaiah and the End of the Dial of Ahaz,"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47 (1957), 27-33쪽.

39) 박 신배는 "앗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종교 이념 연구," 「구약논단」 23집 157쪽에서 아시리아인

그 결과로 주전 8세기 말부터 7세기에 팔레스틴에서 달신 숭배의 증거가 되는 많은 인장들이 발견되고, 이 시기에 저작이나 편집된 성경의 기록에도 달신 숭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주전 8세기까지 날개달린 태양원반과 같은 태양신의 상징물은 팔레스틴의 도상학 자료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이었다. 팔레스틴 도상학 자료에 나타나는 태양의 상징물들은 페니키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8세기 이후 팔레스틴에 아시리아 제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7세기에 와서는 인장들에 새겨진 상징물에도 변화가 생겼다. 8세기 인장들에는 그룹과 같은 날개달린 혼합 생물의 위에 태양원반이 함께 등장하곤 했다. 그러나 7세기의 작품에는 태양원반 대신에 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sup>40)</sup> 태양신이 달신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이러한 변화는 주전 7세기 팔레스틴의 공예 작품들에서 태양과 관련된 상징물들이 거의 사라진 점에서도 감지된다.<sup>41)</sup>

## 8. 하늘의 여왕

철기 2기 시대 유다의 종교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아시리아의 영향은 예레미야에 언급된 "하늘의 여왕"이다(렘 7: 18; 44: 17-18). 하늘의 여왕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쉬타르가 가장 유력한 후보일 것이다. 특히 렘 7장 18절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 바쳤다고 한다. 여기에서 과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מַנִּינֵי(카바님/케익?)은 아카드어 kamānu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종종 이쉬타르에게 바쳐지곤 했던 것이다.<sup>42)</sup> 또한 이쉬타르는 malkat šamāmi "하늘의 여왕", belit šamê "하늘의 여주인" 등의 별칭들을 가지고 있었다. 예레미야의 증언에 의하면 하늘의 여왕 제의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거주하는 유다인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들이 속국에게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종교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본다.

40) Othmar Keel and Christoph Uehlinger, *위글, 그림 250a, 252와 292를 비교해보라.*

41) Othmar Keel and Christoph Uehlinger, *위글, 295쪽.*

42)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K, 110-111쪽; C. Houtman, "Queen of Heaven," Karel van der Toorn et al.(ed.),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Leiden: Brill, 1999), 678쪽.

## 9.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달신을 섬겼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특히 달신 숭배는 주전 7세기에 와서 더 널리 퍼졌음을 성경과 도상학 자료들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달신처럼 여겼을까?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 일각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태양신의 특성을 지닌 분으로 섬겼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달신과 관련해서는 이는 분명하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팔레스틴에서 엘 신이 달신의 특성을 지닌 신으로 여겨졌고, 야훼 하나님이 엘 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신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엘에게 적용되던 달신의 특성이 야훼 하나님에게도 넘어왔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를 증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야훼 하나님을 달신으로 볼 수 있는 성경적 증거도 없고, 도상학적 자료들도 모호할 뿐이다.<sup>43)</sup> 현재까지 우리가 가진 자료들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전 8세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태양신 숭배가 많았고, 일각에서는 야훼 하나님도 태양신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나, 7세기에는 달신이 더 많은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up>44)</sup> 그리고 비록 강제적이지는 않았지만 팔레스틴 땅에서 아시리아인들의 군사적 활동의 증가와 아시리아-아람의 종교 풍습의 간접적인 영향이 주전 7세기 유다에서 갑작스런 달신 숭배 확산의 배경이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사진 1



사진 2



43) Keel과 Uehlinger가 그들의 책 309-316쪽에서 야훼 하나님을 달신으로 볼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그 논거가 약하다.

44) 이스라엘의 태양신 숭배에 대하여는 엄 원식, "Atonism을 통해 본 다윗의 Yahwism," 「구약논단」 1집 (1995), 171쪽 이하에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 10. 참고 문헌

- 박 신배, "앗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종교 이념 연구," 「구약논단」 23집 (2007), 147-163쪽.
- 엄 원식, "Atonism을 통해 본 다윗의 Yahwism," 「구약논단」 1집 (1995), 154-180쪽.
- 이 동규, "나보니두스의 정치, 종교적 행적(行蹟)과 그 배경," 「서양고대사연구」 23집 (2008), 7-31쪽.
- 이 중근, "신 바벨론 제국의 나보니두스에 관한 소고," 「성경과 고고학」 60호 (2008), 18-40쪽.
- Albright, William F., "The Conquest of Nabonidus in Arabia,"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25), 293-295쪽.
- Beaulieu, Paul-Alan, "King Nabonidus and the Neo-Babylonian Empire," Jack M. Sasson(ed.),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2000), 969-979쪽.
- Black, Jeremy/Anthony Green, *Gods, Demons and Symbols of Ancient Mesopotamia*,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2).
- Burney, C. F., *The Book of Judges with Introduction and Notes on the Hebrew Text of the Books of Kings with an Introduction and Appendix*,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70).
- Cogan, M., *Imperialism and Religion: Assyria, Judah and Israel in the Eighth and Seventh Centuries B.C.E.*, (Missoula: Scholars Press, 1974).
- \_\_\_\_\_. "Judah under Assyrian Hegemony: A Reexamination of Imperialism and Religi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2 (1993), 403-414쪽.
- Cogan, M./H. Tadmor, *II Kings*, (Anchor Bible 11), (New York: Doubleday, 1988).
- Cross, Frank M., "Fragments of the Prayer of Nabonidus," *Israel Exploration Journal* 34 (1984), 260-264쪽.
- Green, T., *The City of the Moon-god: Religious Traditions of Harran*, (Leiden: Brill, 1992).
- Hall, M. G., "A Study of the Sumerian Moon-God, Nanna/Sue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 Hess, R. S., "Terah (Person)," *Anchor Bible Dictionary* 6:387-388쪽.
- Houtman, C., "Queen of Heaven," Karel van der Toorn et al. (ed.),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Leiden: Brill, 1999), 678-680쪽.

Iwry, Samuel, "The Qumran Isaiah and the End of the Dial of Ahaz,"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47 (1957), 27-33쪽.

Jirku, A., "Der Kult des Mondgottes im altorientalischen Palästina-Syrien,"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100 (1950), 202-220쪽

Keel, Othmar, *Goddesses and Trees, New Moon and Yahweh: Ancient Near Eastern Art and the Hebrew Bible*, (JSOTSup 26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Keel, Othmar/Christoph Uehlinger, *Gods, Goddesses, and Images of God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8).

Key, A. F., "Traces of the Worship of the Moon God Sin Among the Early Israelit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4 (1965), 20-26쪽.

Lewy, Julius, "The Late Assyro-Babylonian Cult of the Moon and Its Culmination at the Time of Nabonidus," *Hebrew Union College Annual* 19 (1945), 405-489쪽.

Martinez, F. G., *Qumran and Apocalyptic: Studies on the Aramaic Texts from Qumran* (Leiden: Brill, 1992), 116-136쪽.

McKay, J., *Religion in Judah under the Assyrians 732-609 BC*, (London: SCM Press, 1973).

Milgrom, Jacob, *The JPS Torah Commentary: Numbers*,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Ornan, Tallay, *The Triumph of the Symbol: Pictorial Representations of Deities in Mesopotamia and the Biblical Image Ba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5).

Schmidt, Brian B., "Moon," Karel van der Toorn et al.(ed.),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Leiden: Brill, 1999), 585-593쪽.

Sjöberg, A., *Der Mondgott Nanna-Suen der sumerischen Überlieferung*, (Stockholm, Almqvist & Wiksell, 1960).

Smith, Mark S., "Yahweh, El, and the Divine Astral Family in Iron Age II Judah," W. G. Dever/S. Gitin(ed.), *Symbiosis, Symbolism, and the Power of the Past*, (Winona Lake: Eisenbrauns, 2003), 265-277쪽.

Theuer, G., *Der Mondgott in den Religionen Syrien-Palästinas: unter besonderer Berü*

cksichtigung von KTU 1.24, (OBO 17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Wilkinson, Richard H., *The Complete Gods and Goddesses of Ancient Egypt*, (London: Thames & Hudson, 2003).

Williamson, H. G. M., "Sanballat (Person)," *Anchor Bible Dictionary* 5:973쪽.

## 검색어

달신 숭배  
 일월성신 숭배  
 신(Sin)  
 도상학  
 하늘의 여왕

## The Cult of the Moon God in Ancient Israel

Seung-II Kang, Ph.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annam University

The moon is the most prominent luminary in the night skies. This gives the moon a special place in Mesopotamian myth and ritual. Major time periods and holidays were set to the phases of the moon, the new, the quarter, and the full moons, and the king participated in the associated festivals along with the priests and the public. Accordingly, the moon-god enjoyed a high-ranking position in

the Mesopotamian pantheon.

Some iconographic representations show that the moon god was worshiped in ancient Israel, too. They include the stele found at Hazor containing the symbol of a lunar deity in low relief with two human hands raised below the symbol, the bull-headed figure in a stele found at Bethsaida, and stamp seals with various lunar symbols with Israelite names, etc.

Biblical data condemning lunar cult mostly stem from the late pre-exilic period or thereafter, such as the Deuteronomistic texts and Jeremiah, which indicates that the cult of the moon became very popular during the 7th century BCE and onwards. Archaeology essentially reveals the same picture. The vast majority of seals with astral symbols originate from the period between 730 and 630 BCE.

Although the Assyrians did not impose religious obligations upon their vassals, it is likely that the imperial presence of the Assyrians in Palestine prompted the kings of Judah to voluntarily adopt the Assyro-Aramean religious practices. And this may have contributed to the resurgence of the worship of the lunar deity in Judah during the 7th centuries BCE.

## Keywords

The Cult of the Moon God

Astral religion

The Moon God Sin

Iconography

Queen of the Heaven

- 투고일: 2011년 9월 3일
- 심사일: 2011년 9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26일

www.kci.go.kr